

上博楚簡 《詩論》 과 《毛詩序》 의 비교*

- 서술체계, 평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강신석**

<目 錄>

1. 들어가는 말
2. 서술체계
3. 평론의 관점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楚竹書는 經書 文獻연구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¹⁾ 예를 들어, 1977년 阜陽에서 出土된 漢簡 《詩經》의 殘簡은 魯·齊·韓·毛 등 四家詩 중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고적으로 전해 내려오지 않고 일반 민간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하나의 《詩經》 版本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32-A00187) 2008년도 中國文化研究學會 春季學術大會(2008. 5.31)에서 《儒家詩論의 발생과 궤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군산대학교 교수

1) 李學勤은 이러한 佚書竹簡이 중국학술사 그 가운데 문학사에 미친 중대한 공전의 가치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로 죽간은 곧 현재 고적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중요한 고문서이다. 둘째로 많은 佚書들은 당시 문학예술의 이론과 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셋째로 竹簡은 고대 문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한다. 李學勤 《出土佚書의 三點貢獻》, 《文藝研究》 2000年 第3期, p.21.

것 같다. 이를 근거해 볼 때, 漢代에는 《詩經》詩說이 四家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先秦 楚竹簡 〈詩論〉의 발견은 학계에서는 文獻學과 學術史의 측면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첫째로 문헌학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최초의 비교적 체계적인 孔門 《詩經》學 저술이라는 점, 둘째로 中國經學에 있어 중요한 분야인 《詩》學史 내지 學術史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문건이라는 점이다. 馬承源은 《上博楚簡》 중의 한 편인 총 29枚 〈詩論〉에서 평론하고 있는 詩篇의 순서를 頌, 大夏(雅), 小夏(雅), 邦(國)風으로 정리해 내었다. 이러한 작품 배열순서에 관한 논의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竹簡 〈詩論〉은 현행본 《詩經》²⁾의 문자, 체재와 내용 등과는 다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中國文學史, 詩學史의 맥락을 정리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BC 4 세기 후반에서 BC 221年 전후, 즉 戰國中期 후반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楚竹簡(《郭店楚簡》 총 804 餘枚 13,000 餘字 와 《上海博物館藏楚竹書》 총 1,200 餘枚 35,000 餘字)에 대한 원전해석, 판본간 비교 탐색의 일환이다. 또한 필자의 선행연구 토대 위에 중국문학비평사 적용 구현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동시에 先秦으로부터 漢代에 이르는 시기, 儒家 詩論의 발생과 그 발전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上博楚簡 〈詩論〉과 〈毛詩序〉의 서술체재, 평론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두 평론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詩經》의 원형 복원, 〈詩論〉의 가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얻기 위하여, 먼저 上博簡 〈詩論〉과 〈毛詩序〉의 평어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상호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詩經學의 원형과 발전에 대한 전체 맥락을 짚어 보고자 한다. 미시적으로는 詩經論의 발생배경과 발전양상, 그 영역에서 〈詩論〉과 이후 孔子門人을 포함한 儒家 詩論의 시간적인 선후관계, 그 위치와 역할 등을 살펴보기

2) 현행본이라함은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詩經》을 말하는 것으로, 詩經은 다른 이름으로 毛詩라고도 부른다. 詩經은 원래 다른 경전과 더불어 秦火로 소실되었다가, 西漢初 齊·魯·韓 三家詩와 이어서 毛詩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詩經》은 《漢書藝文志》에 기재되어 있는 《毛詩》二十九卷과 《毛詩故訓傳》三十卷 가운데 《毛詩故訓傳》三十卷을 가리킨다.

로 한다.

2. 서술체계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된 上博楚簡《詩論》에 대한 전문 연구의 성과물인 馬承源의 整理本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馬承源은 上博楚簡《詩論》竹簡排列 순서에 따라, 그 구성을 詩序, 頌, 大雅, 小雅, 國風, 綜論의 여섯 부분으로 분류하였으며, 평론 대상의 작품 배열도 각각 頌, 大雅, 小雅, 國風의 4부류의 순서에 따랐다. 詩序 부분은 시에 대한 개론적 서술을 할 뿐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보았다. 나머지 頌, 大雅, 小雅, 國風 4부분은 각기 구체적인 작품을 평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綜論은 각기 國風, 大雅, 小雅에 속한 작품을 포괄적으로 논급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현행본 시경과는 분명 다른 것으로, 《詩論》 제 2간 “頌平德也, 多言後 - 以下”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며, 毛詩의 작품의 순서가 國風, 小雅, 大雅, 頌인 것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으로 인식하였다.³⁾

둘째, 내용상 《詩論》과 현행본 《毛詩序》는 성격이 비슷한 문헌자료이다. 馬承源은 《詩論》에서는 《毛詩序》의 小序에서 보이는 정치교화적 의도가 숨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詩經》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⁴⁾

셋째, 결국, 죽간 총 29간의 원래의 순서를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또는 楚竹簡《詩論》의 가치를 어떻게 규명해 내느냐 등의 문제는 바로 《詩經》 원래의 형태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詩經》의 원형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는 《詩經》의 내용과 구조, 작품의 배열순서, 先秦시대 《詩序》의 존재여부 등의 문제가 포함된

3) 馬承源 《上海博物館所藏戰國楚竹書(一)》 p.122.

4) 馬承源 《上海博物館所藏戰國楚竹書(一)》 p.140, pp.146-147, p.166.

다.

필자는 첫째 문제는 서술체계, 둘째 문제는 평론의 관점, 셋째 문제는 《詩經》의 원형 복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고찰하기 위하여 馬承源 등의 整理本을 중심으로 정확한 해석을 근거하여 〈詩論〉과 〈毛詩序〉 두 평론을 비교해보고, 학자들 간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견해를 검토하여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馬承源의 整理本이 제기한 문제들은, 〈詩論〉 서술체계의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내용과 체재, 分章 등을 추정하는 단서로서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전제되어있다. 1) 《詩經》의 내용을 평론하는 체재이고, 2) 서술자의 논리전개 방식이다.

1)의 문제에 대해 馬承源, 濮茅左, 黃人二, 廖名春 등은 上博簡 楚竹書의 발견으로 현행본 《詩經》의 순서가 후대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원래 先秦시기 《詩經》의 순서는 頌, 大雅, 小雅, 風이었으며, 이 순서에 따라 《詩經》을 평론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李學勤, 姜廣輝, 范毓周 등은 上博楚簡 〈詩論〉 역시 현행본 《詩經》의 순서와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風, 小雅, 大雅, 頌의 순서에 따라 배열 순서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2)의 문제에 대해 馬承源, 濮茅左 등은 毛詩 大序와 小序의 형식과 같이, 먼저 總論을 서술한 후 각 작품에 대해 평론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반면 李學勤, 李零, 廖明春 등은 먼저 각 작품을 평론한 후 총론을 가장 나중에 서술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두 견해에 대한 절충안으로 姜廣輝, 范毓周 등은 詩序와 같은 형식의 總論을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놓고, 실제 작품내용에 대한 평론은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논지를 명확히 전개시켰을 것으로 추론하였다.⁵⁾

楚竹簡 〈詩論〉의 배열순서에 대하여 馬承源은 제1간부터 제4간까지 시와 체재에 대한 개론 서론에 해당하는 것을 첫 부분에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중요한 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 제 1간은 詩와 志, 音樂과

5) 이상의 내용은 曹建國의 논문 論上博《孔子詩論》簡的編連에서 정리하여 재인용함. 이외에도 馬銀琴, 王小盾의 논문 上博簡《詩論》與《詩》的早期形態에서는 〈孔子詩論〉의 내용을 詩序, 頌, 大雅, 小雅, 風, 綜論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순서를 배열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上博簡 〈孔子詩論〉의 배열을 근거로 하여 현행본 《詩經》 원래의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情, 글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總論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 2간, 제 3간, 제 4간은 頌, 大雅, 小雅, 風의 특징과 사회적 실용성을 논술하고 있다. 제 2간, 제 3간은 頌, 大雅, 小雅, 風을 각기 논술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제 4간에서 “詩其猷平門” ~”와 같은 총론적 성격의 비평을 한 후 다시 國風을 평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장을 서술하는 구문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제 4간은 전반부 단락 “시란 들어 가는 문과 같다. 일반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면 어떤 시를 고려해야 하는가(詩其猷平門) . 與戔(賤)民而飭之, 其(其)甬(用)心也(將)可(何)女(如)[?]”에서 國風에 대하여 평론한 후, 후반부 단락 “백성이 하나가 되지 못하거나 우환에 처할 때 고려할 것에는 어떤 시가 있는가(民之又(有)戔(罷)卷(倦)也, 卡=(上下)之不和者, 其(其)甬(用)心(將)可(何)女(如)[?]”는 國風에 대한 중복 또는 재평론이 아닌 小雅에 대한 평론일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이어지는 구문은 “少夏是也”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열순서는《詩論》論詩 형식의 서술체계를 분명히 시사해주고 있다. 즉 먼저 시에 대한 총론인 “詩其猷平門”을 서술한 후, 國風과 小雅에 대해 평론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大雅와 頌에 대한 평론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분명하다.

上博楚簡本《詩論》의 頌에 대한 평론으로 여겨지는 구문이 제 5간에서 “[《小雅》의 시는 ……; 《大雅》의 시는 ……]이다. 성공에 관한 것이 있는가? 성공적인 왕의 정치에 대해서는《頌》에서 찾을 수 있다(氏(是)也) . 又城(成)工(功)者可(何)女(如)[?] 曰: 訟(頌)氏(是)也.”와 같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 4간과 제 5간의 사라진 평론부분이 “《大雅》”, “《小雅》氏(是)也”일 뿐만 아니라 大雅에 대한 평론부분은 예컨대, “與賤民而飭之, 其用心也將何如?” 또는 “成功者何如?”와 같은 의문어구형식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詩論》의 論詩 형식은《毛詩序》에서와 같이 國風, 小雅, 大雅, 頌의 순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上博楚簡《詩論》이 저술될 당시의 시경의 배열순서 역시 오늘날 현행본의 시경의 순서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詩論〉 제 4간을 근거로 서술순서를 序論 → 國風, 小雅로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가? 나아가 〈詩論〉의 論詩 순서와 〈毛詩序〉의 서술체계를 동일시하여, 〈詩論〉의 순서가 頌, 大雅, 小雅, 國風일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확실한가? 반면 上博楚簡을 최초로 정리한 馬承源은 제 2간을 들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⁶⁾ 이 죽간은 頌, 大雅에 대한 평론을 가하기 전에 분명히 “寺也. 文王受命矣”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 작품을 평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受命”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죽간은 제 7간의 “裒(懷)尒(明)惠(德). 害(曷)? 城(誠)胃(謂)之也. “又(有)命自天, 命此文王.” 城(誠)命之也. 信矣!” 孔=(孔子)曰: 此命也夫. 文王佳(唯)谷(裕)也, 得(得)唐(乎)? 此命也!”라는 부분으로 “裒爾明德”은 文王이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을 노래한 《大雅·皇矣》 “帝謂文王, 予懷明德”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으로 추정되며, “又命自天, 命此文王”은 《大雅·大明》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부분 역시 〈毛詩序〉의 文王이 天命을 받은 일과 관련된 내용인 “大明, 文王有明德, 故天夏命武王也.”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寺也, 文王受命矣”의 평론부분은 제 7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논리로 제 2간의 頌, 大雅에 대한 평론부분은 구체적인 개별 작품에 대한 평어 다음으로 위치해야 옳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서술체계에 대한 견해를 확대 적용하고, 죽간의 크기와 구조(留白簡, 滿寫簡), 그간의 해독과 배열순서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詩論〉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⁷⁾

(1) 《詩經》 國風 周南 7편 각 작품을 한 글자로 평론한 것, 그러한 평론의 이유를

6) 馬承源은 제 2간: 訟(頌)坪(平)惠(德)也. 多言(遂)後, 兀(其)樂安而厚(遲), 兀(其)訶(歌)紳(孺)而(莠)(莠), 兀(其)思深而遠, 至矣(大)顯(夏)盛惠(德)也, 多言. 제 3간: 也, 多言難而(意)(情)退(黷)者也, 衰矣, 少矣. 邦風, 兀(其)內(納)勿(物)也. 專(溥), 舊(觀)人谷(俗)安(焉). 大(簣)(斂)材安(焉), 其言(文)(文), 其聖(聲)善. 제 2간과 3간 사이에 《小雅》에 관한 총체적인 평론을 가하는 일부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평론의 순서를 頌 → 大雅 → 小雅 → 國風로 추정하여 논리를 전개함.

7) 필자의 《整理本 上博楚簡 〈詩論〉 竹簡의 배열순서에 대한 논의》, 《中國文化研究》, 11輯 pp.137-160 참조.

두 차례 거듭하여,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내용

10(46cm), 14(24.5cm)-12(43cm), 13-15(42.1cm), 11(38.1cm), 16(47.8cm, 《燕燕》之情, 以其獨也.)

(2) 孔子의 평론을 인용한 부분. 國風 周南, 召南, 衛風, 唐風에 대하여 각각 “吾以〈〉, 得…….(나는 〈〉로부터, ……를 깨닫게 되었다)”의 문장형식으로 평론한 내용

16(47.8cm, 孔子曰……), 24(53.8cm), 20(44.3cm), 27(43cm, 賓贈是也.)

(3) 唐風에 대하여 두 글자로 평한 孔子의 평론을 인용한 부분과 평론자의 부연설명. 小雅와 國風 邶風, 衛風, 唐風을 평론한 부분

27(孔子曰……), 19-18(40.2cm)

(4) 小雅만을 평론한 부분

8(52.4cm), 9(53.8cm), 21(47.6cm, 〈湛露〉之賡也, 其猶車它與(歎)!)

(5) 孔子의 國風 평론을 인용한 부분 : “〈〉吾□(善, 喜, 信, 美, 敬, 悅, □)之.”라고 평한 후, 다시 각 작품〈宛丘〉로부터〈昊天有成命〉까지 실제 시구를 예로 들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부분. 21(47.6cm, 孔子曰……), 22(38.4cm), 6(49.5cm)

(6) 國風만을 한 글자 혹은 두자, 그 이상의 문장으로 평론한 부분

17(24.1cm), 25-26(43.4cm), 28-29(39cm), 23(27.7cm)

(7) 大雅〈皇矣〉의 시구를 들어 그 詩意를 추정하고, 孔子의 평을 인용하여 실제 작품과의 연관성을 부연하여 밝히고 있는 부분

7(42cm), 2(55.5cm, 文王受命矣.)

(8) 詩序의 성격이 강한 부분 : 頌, 大雅, 小雅, 國風에 대하여 개괄하여 평론한 부분.

2(《頌》, 平德也, ……), 3(51cm, 其言文, 其聖(聲)善.)

(9) 孔子의 詩論을 개관하고 있는 부분. 공자의 시관, 즉《詩經》의 가치와 효용을 國風, 小雅, 大雅, 頌의 순서로 밝히고 있는 부분

3(孔子曰……), 4(46.1cm, □□□□□□ … [孔子]曰……), 5(47.5cm, 有成功者何如? 曰:《頌》是也.)

(10) 周頌〈清廟〉의 최고의 가치가 주제에 있어, 王德에 있음을 밝히고, 孔子의 詩

觀으로 총 마무리 짓는 부분. 문학과 예술의 가치를 총괄하여, 시와 음악과 글이란 뜻(志, 意)과 감정(情)을 표출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총론적 성격이 강한 부분 5(〈清廟〉, 王德也, ……부터), 1(22.2cm, 行此者其有不王乎? … 孔子曰……文無隱意.)

다음으로 평론하는 서술방식으로는 〈詩論〉은 春秋시대 유행하던 斷章取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詩經》의 몇 구절에 대하여 평론하거나, 시구를 인용한 후 주관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한 단어로 평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각 시구를 摘取하고, “吾美之”、“吾信之”、“吾喜之”、“吾善之”라고 짧게 직관적 심미비평을 하는 경우이다.⁸⁾ 이러한 斷章取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詩論〉의 평론형식은 작품 전체에 대한 체계적 서술로 이뤄진 〈毛詩序〉의 형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3. 평론의 관점

〈詩論〉의 평론대상은 모두 60首이다. 이 가운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편인 〈律而〉·〈角幡〉·〈河水〉, 篇名만 남아있거나 한 자로 평어가 남아있는 〈伐木〉·〈裳裳者華〉·〈小明〉·〈青蠅〉이 있다. 따라서 〈毛詩序〉와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은 53首로, 두 평론의 평어를 관점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이러한 비평의 예를 죽간에서 찾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邶(宛)丘> 虞(吾)善之 ㉑ <邶(宛)丘> 曰: “匄(洵)又(有)情, 而亡望.” 虞(吾)善之. (22) <於(猗)嗟(嗟)> 虞(吾)意(喜)之 ㉒ <於(猗)嗟(嗟)> 曰: “四矢復(變·弁·反), 曰(以)御(亂).” 虞(吾)意(喜)之 ㉒ <巨(鳴)鵲(鳩)> 虞(吾)信之 ㉓ <巨(鳴)鵲(鳩)> 曰: “丌(其)儀(氏), 心如結也.” 虞(吾)信之. (22) <文王> 虞(吾)美(美)之(21) <文王> [曰: “罔]王才上, 於(邵)于天.” 虞(吾)美(美)之. (22) <刺(烈)旻(文)> 曰: “乍(隸)隹(唯)人, 不(丕)顯(唯)惠(德), 於(昏)乎, 前王不忘!” 虞(吾)敷(悅)之. (6)

(1) 논점의 일치

《詩論》과《詩序》의 평어는 서로 지지, 보충 혹은 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논점이 일치한 작품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國風에 대한 평론

● 周南

<葛覃>

《詩論》: <葛覃>편으로부터 인간의 근본을 엿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 근본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칙닝쿨(葛藤)을 노래한 것은 [있이 무성하기 때문이다.](<葛覃>得氏初之詩, 民性固然. 見其美, 必欲反一本. 夫葛之見歌也, 則(16). [<周南·葛覃>의 칙닝쿨이 칭송되어지는 것은] 그 잎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이며, 后稷이 존경을 받는 것은 문왕과 무왕의 덕행이 아름답기 때문이다.(以葉萋之故也. 后稷之見貴也, 則以文武之德也. 后稷之見貴也, 則以文武之德也.)(24)

《毛詩序》: <葛覃>은 후비의 근본을 읊은 것이다. 후비가 부모의 친정집에 있을 적에 뜻이 女工의 일에 있어 몸소 검소하고 절용하여 뽕 옷을 입고 사부를 존경하면 돌아가 친정 부모에게 문안을 올려 婦道로써친하를 교화할 수 있는 것이다.(葛覃后妃之本也. 后妃在父母家, 則志在於女功之事, 躬儉節用, 服澣濯之衣, 尊敬師傅, 則可以歸安父母, 化天下以婦道也.)

● 召南

<甘棠>

《詩論》: <甘棠>은 경애하여 기린 내용이고,(甘棠之保)(10), [<甘棠>은] 그분을 그리워함을 노래하는 것이니, 그분을 비유하는 나무를 경애함을 기리는데 어찌 둔후함이 없으리요! 감당에 애정을 갖는 것은 소공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다.(及其人, 敬愛其樹, 其保厚矣. 甘棠之愛, 以邵公)(15), 나는 《召南·甘棠》으로부터 宗廟에 대한 존경심을 배웠다. 이는 곧 사람의 본성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을 존경하며,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가 한 일들을 좋아한다. 그 사람을 싫어하면 이와 상반된 행위를 하는 법이다.(吾以甘棠得宗廟之敬, 甚貴其人, 必敬其立, 悅其人, 必好其所爲, 亞其人者亦然.)(24)

〈毛詩序〉：〈甘棠〉은 소백을 찬미한 시이니, 소백의 교화가 남쪽나라에 밝혀진 것이다(甘棠, 美召伯也, 召伯之教, 明于南國.)

● 邶風

〈綠衣〉

〈詩論〉：〈綠衣〉는 그리움에 관하여, (綠衣之思,)(10), 〈綠衣〉의 시름은 故人인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綠衣之憂, 思古人也,)(16)

〈毛詩序〉：〈綠衣〉는 위나라 장강이 자신을 서글퍼한 시이다. 첩이 위로 참람하여 부인이 지위를 잃자, 이 시를 지은 것이다. (綠衣, 衛庄姜傷己也, 妾上僭, 夫人失位而作是詩也.)

〈北風〉

〈詩論〉：《邶風·北風》은 백성들의 절망을 읊은 시이다. (北風不絕人之怨)(27)

〈毛詩序〉：〈북풍〉은 사나움을 풍자한 시이다. 위나라 사람들이 모두 위엄과 사나운 짓을 하니, 백성들이 친하지 못하여 서로 손을 잡고 떠나가지 않는 이가 없었다. (北風, 刺虐也, 衛國并爲威虐, 百姓不親, 莫不相携持而去焉.)

● 齊風

〈東方未明〉

〈詩論〉：〈東方未明〉은 풍자하는 언사가 있고, (東方未明又利詞)(17)

〈毛詩序〉：〈東方未明〉은 절도가 없음을 풍자한 시이다. 조정이 일어나고 거처함이 절도가 없고 호령이 제때에 맞지 않아 설호씨(시각을 맡은 관원)가 그 직책을 관장하지 못한 것이다. (東方未明, 刺無節也, 朝廷興居無節, 號令不時, 挈壺氏不能掌其職焉)

2) 小雅에 대한 평론

〈十月之交〉

〈詩論〉：《小雅·十月之交》는 풍자를 훌륭하게 표현하였고, (十月善諱言,)(8)

〈毛詩序〉：〈十月之交〉는 대부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다. (十月之交, 大夫刺幽王也.)

〈雨無正〉, 〈節南山〉

〈詩論〉：小雅 〈雨無正〉과 〈節南山〉은 모두 왕실의 쇠락을 읊은 노래이기 때문에, 王公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雨亡政·卽南山, 皆言上之衰也, 王公耻之,)(8)

〈毛詩序〉: 〈雨無正〉은 대부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다. 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정령이 비처럼 내려왔으나 올바른 정사는 아니었다.(雨無正, 大夫刺幽王也. 雨自上下者也. 衆多如雨而非所以爲政也), 〈節南山〉은 가부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다.(節南山은, 家父刺幽王也.)

〈小宛〉

〈詩論〉: 〈小宛〉의 가사는 지나친 원망의 기색이 없으며, 다만 어질지 못한 자들에 대한 풍자가 섞여 있다.(少宛其言不亞, 少又佞安.)(8)

〈毛詩序〉: 〈小宛〉은 대부가 선왕을 풍자한 시이다.(小宛, 大夫刺宣王也.)

〈小弁〉, 〈巧言〉

〈詩論〉: 〈小弁〉과 〈巧言〉은 함부로 참언하는 사람의 해로움을 노래하고 있다.(少弁·考言, 則讒人之害也.)(8)

〈毛詩序〉: 〈小弁〉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니, 태자의 사부가 지은 것이다.(小弁, 刺幽王也. 太子之傳作焉), 〈巧言〉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니, 대부가 참언에 폐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이 시를 지은 것이다.(巧言, 刺幽王也. 大夫傷于讒, 故作是詩也.)

〈天保〉

〈詩論〉: 《小雅·鹿鳴之什·天保》는 爵祿과 만수무강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는 孝享하는 酒食이 많지 않지만, 그 덕만은 옛날과 같이 변함없기 때문인 것이다.(天保其得泉茂疆矣. 巽寡, 德古也.)(9)

〈毛詩序〉: 〈天保〉는 아래사람이 위사람에게 보답한 시이다. 군주는 아래사람에게 몸을 낮추어 그 정사를 이루고, 신하는 아름다움을 군주에게 돌려 그 위사람에게 보답한 것이다.(天保, 下報上也. 君能下下, 以成其政, 臣能歸美, 以報其上焉.)

〈黃鳥〉

〈詩論〉: 《小雅·鴻雁之什·黃鳥》는 곤궁에 처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많은 곤경을 겪은 사람은 곧 이를 마음의 병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는가?(黃鳥則困而谷反其古也, 多耻者其病之乎?)(9)

〈毛詩序〉: 〈黃鳥〉는 선왕을 풍자한 시이다.(黃鳥, 刺宣王也.)

〈菁菁者莪〉

〈詩論〉: 《小雅·南有嘉魚之什·菁菁者莪》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을 노래한 것이고.(菁菁者莪, 則以人益也.)(9)

〈毛詩序〉: 〈菁菁者莪〉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즐거워한 시이니, 군자가 인재를 키우고 기르면 천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菁菁者莪, 樂育材也. 君子能長育人材, 則天下喜樂之矣)

〈杛杜〉

〈詩論〉：《小雅·鹿鳴之什·杛杜》의 情은 (집에) 돌아옴을 기뻐한 것이다. (折杜則情喜其至也.) (18), 〈杛杜〉로부터 爵位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吾以折杜得雀口) (20)

〈毛詩序〉：〈杛杜〉는 부역에서 돌아옴을 위로한 시이다(杛杜, 勞還役也)

〈湛露〉

〈詩論〉：《小雅·白華之什·湛露》의 풍요로움은 군신의 연회를 찬미하는 노래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湛露之賡也, 其猷配与.) (21)

〈毛詩序〉：〈湛露〉는 천자가 제후에게 연악을 베풀어 줌을 읊은 시이다.(湛露, 天子燕諸侯也.)

〈鹿鳴〉

〈詩論〉：《小雅·鹿鳴》은 음악으로 시작하고, 도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교제는 착한 것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것이니 시종여일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鹿鳴以樂詞而會, 以道交見善而效, 冬庠不厭人.) (23)

〈毛詩序〉：〈鹿鳴〉은 여러 신하들과 아름다운 손님을 燕饗하는 시이다. 이미 음식을 먹이고 또 폐백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 후의를 받들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충신과 아름다운 손님이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鹿鳴, 燕群臣嘉賓也. 既飲食之, 又實幣帛筐篚, 以將其厚意, 然后忠臣嘉賓, 得盡其心矣.)

3) 大雅에 대한 평론

〈大明〉

〈詩論〉：나는 너에게 밝은 덕을 갖도록 하여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리키는 뜻인가? 이는 상제께서 진심으로 문왕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명이 하늘로부터 내린지라, 문왕에게 명하시기를”라는 시구는 진실로 문왕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 참으로 진실된 것이로다! 孔子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천명이라. 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얻고자 한들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문왕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것이다.(又命自天, 命此文王, 城命之也, 信矣. 孔 = 曰：此命也夫. 文王佳谷也, 得乎? 此命也)(7)

〈毛詩序〉：〈大明〉은 문왕이 밝은 덕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이 다시 무왕에게 명함을 읊은 시이다.(大明, 文王有明德, 故天夏命武王也.)

〈文王〉

〈詩論〉：〈文王〉편을 진정 아름답다고 여긴다.(文王吾美之)(21):

《毛詩序》: 《文王》편에 “문왕께서 위에 계시니, 아 천하에 그의 덕행 밝게 그의 덕행 밝게 빛나고 있네.”라고 한 시구를 찬미한다.(文王曰: 文王才上于邵于天, 吾美之.)(22):

4) 周頌에 대한 평론

《清廟》

《詩論》: 《清廟》는 왕이 천하를 통일한 德에 관한 것으로 극치를 이룬다! 즉 《清廟》는 宗廟의 예를 존경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고, 문왕의 덕을 받드는 것을 본업으로 삼았다.(王德也. 至矣. 敬宗廟之豐, 以爲其本, 秉文之德, 以爲其業)(5), …수많은 선비들이 문왕의 덕을 받들어”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존경하고,(…多士, 秉文之德, 吾敬之)(6), 《清廟》는(<清[廟]>)(21) 《毛詩序》: 《清廟》는 문왕에게 제사하는 시이다. 주공은 낙읍을 완성하고 제후들에게 조회를 받은 다음 제후들을 거느리고 문왕에게 제사하였다.(清廟祀文王也. 周公既成洛邑, 朝諸侯, 率以祀文王焉.)

(2) 논점의 불일치

《詩論》은 작품 실제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평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詩序》는 “나라의 일을 개인에게 관련짓는”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시를 윤리, 정치와 관련하여 평론하고 있다.

● 周南

<關雎>

《詩論》: 《關雎》는 남녀 관계의 기쁨에 대하여…《關雎》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예의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關雎之怡…關雎以色餘于豐)(10), 《關雎》의 남녀의 기쁨은 시인의 생각이 풍부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고,(關雎之怡, 則其思隘矣.)(11), 《關雎》는 혼인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한 것으로, 이 즐거움을 통하여 ‘禮’를 표현한 것인데, 어찌 비유로 전환시킨 것 아니겠는가?(好, 反內于豐, 不亦能怡摩?)(12), 《關雎》의 제3장은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고, 제4장은 비유적 표현이다. 琴瑟을 타는 기쁨을 숙녀를 좋아하는 마음을 비유하였고, 鐘鼓의 음악으로 [혼인의 즐거움을 비유하였다.](以琴瑟之悅, 擬好色

之愿. 以鐘鼓之樂)(14)

〈毛詩序〉: 〈關雎〉는 후비의 덕을 읊은 것이요 풍화의 시초이니,……〈관저는〉 숙녀를 얻어 군자에 짝함을 즐거워하고 현자를 등용함을 걱정하며 여색에 빠지지 아니하고 요조숙녀를 서글퍼하며 賢才를 생각하고 善을 상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곧 〈관저〉의 의의이다.(關雎, 后妃之德也. ……關雎樂得淑女以配君子, 憂在進賢, 不淫其色, 哀窈窕思賢才而无傷善之心焉, 是關雎之義也.)

〈兎置〉

〈詩論〉: 〈兎置〉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 내가 손으로 꼽는다.(兎置其甬人, 則吾取)(23)

〈毛詩序〉: 〈兎置〉는 후비의 교화를 읊은 것이니, 〈關雎〉의 교화가 행해지면 덕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어 현인이 많은 것이다.(兎置, 后妃之化也. 關雎之化行, 則莫不好德, 賢人衆多也.)

〈螽斯〉

〈詩論〉: 《周南·螽斯(仲氏)》는 군자를 노래한 것이다.(中氏君子)(27)

〈毛詩序〉: 〈螽斯〉는 후비의 자손이 많음을 읊은 것이니, 메뚜기와 같이 두기하지 않으면 자손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螽斯, 后妃子孫衆多也. 言若螽斯不妒忌, 則子孫衆多也.)

〈樛木〉

〈詩論〉: 〈樛木〉은 時運에 대하여(〈椽木〉之_上時)(10), 〈樛木〉의 時運은 군자가 福祿을 얻을 수 있는 운명에 관한 것이고,(椽木之時, 則以其衆也)(11), 〈樛木〉의 복록은 군자가 [시운을 만난 것이 아니리오](椽木福斯才君子)(12)

〈毛詩序〉: 〈樛木〉은 후비의 은덕이 아래에 미침을 읊은 것이니, 은덕이 아랫사람들에게 미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樛木, 后妃逮下也. 言能逮下而无嫉妒之心焉.)

〈漢廣〉

〈詩論〉: 〈漢廣〉의 지혜란 얻을 수 없는 것을 미련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灑廣之智, 則智不可得也)(11)

〈毛詩序〉: 〈漢廣〉은 덕택이 널리 미침을 읊은 것이다. 문왕의 도가 남쪽나라에 입혀져 아름다운 교화가 강한의 지역에 행해져서 예를 범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漢廣, 德廣所及也. 文王之道被于南國, 美化行乎江漢之域, 無思犯禮, 求而不可得也.)

〈卷耳〉

〈詩論〉: 그리워하는 사람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그리고 있다.(卷而不知

人)(29)

《毛詩序》：〈卷耳〉는 후비의 뜻을 읊은 것이다. 또 마땅히 군자(남편)를 보좌하여 현자를 찾고 관직을 살피 신하들의 수고로움을 알아야 하니, 안에 현자를 진용하려는 뜻이 있고, 험하고 편벽되며 사사로이 청탁하려는 마음이 없어, 조석으로 사념해서 근심하고 수고로움에 이른 것이다.(卷耳, 后妃之志也. 又當輔佐君子, 求賢審官, 知臣下之勤勞, 內有進賢之志, 而無險詖私謁之心, 朝夕思念, 至於憂勤也.)

● 召南

〈鵲巢〉

《詩論》：〈鵲巢〉之歸(10), 〈鵲巢〉의 혼인은 곧 이별하는 자가 [멀리 헤어짐을 노래하는 것이다.]〈鵲巢之歸, 則離者〉(11), 〈鵲巢〉의 많은 수레로 시집가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은 또한 부모의 집을 멀리 떠나간다는 것 아닌가?(鵲巢出以百兩, 不亦又離虜?) (13)

《毛詩序》：〈鵲巢〉는 부인의 덕을 읊은 것이다. 국군이 훌륭한 행실과 업적을 쌓아 작위를 이루었는데, 부인이 집에서 일어나 차지하니 덕이 시구와 같아야 짝할 수 있는 것이다.(鵲巢, 夫人之德也. 國君積行累功, 以致爵位, 夫人起家而居有之, 德如鳴鳩, 乃可以配焉.)

● 邶風

〈柏舟〉

《詩論》：《邶風·柏舟》는 변민에 관한 노래이며, (北白舟悶)(26)

《毛詩序》：〈柏舟〉는 어질면서도 불우함을 읊은 시이다. 衛나라 頃公 때에 어진 사람이 불우하였고 소인이 군주의 측근에 있었다.(柏舟, 言仁而不遇也. 衛頃公之時, 仁人不遇, 小人在側.)

● 衛風

〈木瓜〉

《詩論》：木瓜로 보답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木瓜之保, 以兪其捐者也.)(18), 〈木瓜〉는 바라는 마음을 감추고 표현해 내지 앓고 있다.(木瓜又臧願而未得達.)(19), [(木苙)는] 예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의 성은 원래 그런 것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반드시 펼쳐내려 한다면, 이른바 선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려 할 때 수레에 물건을 실고 가며, 그런 연후에야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혹은 먼저 예물을 보내고 난 후 다시 상대방과 대면할 수 있으니, 예물 없이 바로 상대방과 대화 할 수 없는 것이다. ([木瓜得] 幣帛之不可法(去)也 . 民嘗(性)古(固)然, 兀(其)際(離)志必

又(有)曰(以)俞(逾)也 | . 丌(其)言又(有)所載而后內(納), 或前之而后交, 人不可解也.) (20)

〈毛詩序〉: 〈木瓜〉는 제나라 환공을 찬미한 시이다. 위나라가 오랑캐 사람들에게 패하여 나가 漕邑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제나라 환공이 구원하여 나라를 봉해주고 거마와 기복을 보내주니, 위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후히 보답하려 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 (木瓜, 美齊桓公也. 衛國有狄人之敗, 出處于漕, 齊桓公救而封之, 遺之車馬器服焉, 衛人思之, 欲厚報之, 而作是詩也.)

● 王風

〈揚之水〉

〈詩論〉: 〈揚之水〉는 부인과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고, (湯之水其愛婦恨) (17):

〈毛詩序〉: 〈揚之水〉는 平王을 풍자한 시이다. 그 백성들을 어루만지지 않고 멀리 母家(申나라)에 주둔시켜 수자리살게 하니, 周나라 사람들이 원망한 것이다. (揚之水, 刺平王也, 不撫其民, 而遠屯戍于母家, 周人怨思焉.)

〈采芣〉

〈詩論〉: 〈采芣〉은 여인과의 애정이다. (采芣之愛婦.) (17)

〈毛詩序〉: 〈采芣〉은 참소하는 말을 두려워한 시이다. (采芣, 懼讒也.)

● 鄭風

〈將仲子〉

〈詩論〉: 〈將仲子〉 중의 ‘言’은 두려워하니 할 수 없는 것이다. (將中之言不可不韋也.) (17)

〈毛詩序〉: 〈將仲子〉는 莊公을 풍자한 시이다. 그 어머니가 아우만을 사랑함을 이겨내지 못하여 그 아우를 해쳤다. 아우인 共叔이 도리를 잃었는데, 公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祭仲이 이를 諫하였으나 公이 듣지 아니하여, 작은 일을 참지 못하여 큰 난리를 일으킨 것이다. (將仲子, 刺莊公也, 不勝其母以害其弟, 弟叔失道而公弗制, 祭仲諫而公弗聽, 小不忍, 以致大亂焉.)

〈褰裳〉

〈詩論〉: 〈涉秦〉(〈褰裳〉)은 장차 절교하려는 결심을 읊은 것이다. (涉秦其絕) (29)

〈毛詩序〉: 〈褰裳〉은 바로잡아주기를 생각한 시이니, 미친 아이가 멋대로 행동하자, 국민들이 강대국에서 자기 나라를 바로잡아주기를 생각한 것이다. (褰裳, 思見正也, 狂童恣行, 國人思大國之正已也.)

● 唐風

〈蟋蟀〉

〈詩論〉: 〈唐風·蟋蟀〉은 어려움을 아는 것을 표현한 시이다.(蟋蟀智難)(27)
 〈毛詩序〉: 〈蟋蟀〉은 진나라 僖公을 풍자한 시이니, 너무 검소하여 예에 맞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를 지어 민망히 여겨 그 때에 미쳐 예로써 스스로 즐거워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진나라 시인데 당풍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풍속을 근본하여 근심이 깊고 생각이 원대하며 검소하면서도 예를 따르고 堯帝의 유풍이 있기 때문이다.(蟋蟀, 刺晉僖公也. 儉不中禮, 故作是詩以閔之, 欲其及時以禮自虞樂也. 此晉也而謂之唐, 本其風俗, 憂深思遠, 儉而用禮, 乃有堯之遺風焉.)

● 檜風

〈隰有萇楚〉

〈詩論〉: 《檜風·隰有萇楚》는 얻고 난 다음 후회하는 것을 읊은 노래이다.(隰又萇楚得而悔之也)(26)
 〈毛詩序〉: 〈隰有萇楚〉는 방자함을 미워한 시이니, 국민들이 그 군주가 음탕하고 방자함을 미워하여 정욕이 없는 자를 그리워한 것이다.(隰有萇楚, 疾也. 國人疾其君之淫恣, 而思無情欲者也.)

이상과 같이 〈詩論〉과 〈詩序〉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두 평론의 논리, 관점은 대체적으로 儒家계열의 시론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다. 두 견해는 서로 일치, 보완 내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점의 불일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시는 대개 國風에 집중되어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國風의 채집목적과 선진시대 시가 관념의 발전양상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3) 採詩, 獻詩 - 美刺說

“시를 채집하여 나라의 풍속을 살핀다(採詩觀風), 시를 지어 잘못을 지적한다(獻詩諷諫).”

연구자는 《詩經》의 해설인 小序의 저술은 漢代 儒家들의 확장된 논리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해야 할 의문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戰國시기 楚簡 〈詩論〉과 漢代 〈毛詩序〉의 내용과 체재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만약 차이가 있다면 저술된 시간상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毛詩序〉의 성격과 시경학사에 있어서의 가치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獻詩諷諫’, ‘采詩觀風’이라는 가설 역시 존재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詩論〉과 〈毛詩序〉는 國風에 대한 평론에 있어 서로 모순된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采詩’, ‘獻詩’라는 제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진한의 역사기록 가운데 ‘採詩觀風’, ‘獻詩諷諫’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獻詩라는 제도는 《國語》《左傳》의 기록을 통해 학자들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그러나 《禮記》, 《漢書》 등의 채시관풍설은 先秦의 신빙성 있는 역사서에는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논쟁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上博簡 지하자료의 출현으로 採詩의 증거를 분명히 얻게 된 것이다.

제 3간 : 國風은 각 나라의 사물을 담고 있어 사람들의 풍속을 두루 살피고, 인재를 크게 등용할 수 있게 한다.(邦風其納物也, 博觀人俗焉, 大斂材焉).

제 16, 20, 24간에서는 세 차례 “民性固然”이라는 논평이 등장하고 있다. 孔子의 시 효용론의 하나인 ‘興觀群怨說’이 “納物, 博觀人俗, 大斂材”이라는 國風에 대한 평론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漢書藝文志〉의 “觀風俗, 知得失, 自改正”의 주입와도 일맥상통하며, 당시 採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先秦시대 “採詩觀風” 제도의 존재에 대한 확증은, 결국 중국의 정치교육 문학 이론의 핵심사상인 教化論 가운데 美刺說을 올바로 인식할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한다. 美刺說은 獻詩, 採詩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한 나라의 일이 개인의 일의 근본이다.”라는 序詩者의 관점을 포괄해내고 있다. 다시 말해 시에 대한 美와 刺라는 평론의 개념은 서시의 저자가 시가창작이나 채집하던 시대의 집권자들의 德行의 高下와 당시 사회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시가작품의 성격과 의의에 대하여 주관적 색깔이 짙은 비평방법은 한 시대의 군주가 덕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그 시대에 창작된 작품은 실제 그 本意와는 상관없이 군주의 부덕함을 諷刺하는 시로 간주하는 것이다. 《詩經》의 창작과

편집시대를 연구함에 있어 대부분의 諷刺詩는 편집된 시대가 항상 창작된 시대보다 후기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採詩觀風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한편으로는 採詩樂官이 군주에게 백성들의 풍속과 관련된 작품을 채집함에 있음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樂官이 군주에게 이러한 시들을 지어 이전시대의 사회모습을 재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밝히고자 함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이는 “정치의 득실을 얻어 스스로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는 목적을 얻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儀典과 音樂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諷諫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했던 채시관풍제도 역시 周代 樂教의 중요한 내용이다.” 국가의 일은 한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序詩의 비평관점은 시 작품내용의 본래 의의와 상당한 거리를 갖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었다. 이는 <國風> 가운데, 남녀애정의 기쁨을 노래한 대다수의 戀歌를 ‘시대를 풍자한 작품으로 간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毛詩序>에서 밝히고 있는 風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결코 國風에 국한되지 않고, 小雅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小雅 가운데 詩情과 무관한 ‘幽王을 諷刺하는 시라는 해석 역시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이다. 다시 말해 <詩序>의 탄생은 周代 樂教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나, 또는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先秦시대 ‘採詩觀風’제도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文學의 教化論의 핵심인 ‘美刺說’에 대하여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美刺說이란 헌시, 채시의 근거인 동시에 이제도의 직접적인 부산물이다. 美刺說이란 서시자가 집권세력의 덕행이나 사회현상 등을 채집한 시를 대상으로, 작품의 성질과 의의에 대하여 극히 주관적인 규정과 평론을 가한 결과이다. 만약 한 시대의 군주가 聖君이아닐 경우, 그 시대에 지어진 작품들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이 ‘한 인물’의 부덕함 때문에 諷刺詩로 간주한다. <詩經>작품의 창작과 편집시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든 ‘刺’에 속하는 작품들은 창작시대보다 늦게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채시관풍이라는 제도가 한편으로는 채시하던 樂官이 시를 통해 당시의 민속풍습을 살피고 알렸으며, 한편으로는 악관이 이러한 시들을 지어 당시의 왕에게 이전의 사회모습을 배우게 함으로서 역사적 거울로 삼아 “득실을 깨달아 스스로를 바르게 살피”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절제된 의식과 조화로운 음악과 함께 諷諫이라는 목적아래 제도화된

채시방법 역시, 周代 樂敎의 맥락 속에서 탄생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詩序〉에도 전승된 방식으로서 詩意와 실제 가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周代의 敎育제도는 소경이나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禮義를 표방으로 한 敎育외에도 왕자나 귀족계급 또는 정치적 재목을 양성하는 음악에 관련된 敎育이 포함되었다. 周代의 樂敎의 대상으로는 風, 賦, 比, 興, 雅, 頌이 주요내용이었으며, 樂敎의 중심에는 興, 道, 風, 頌, 言, 語가 포함되었다. 전자는 실제로 소경이나 무지한 사람들이 낭송하여 부르던 6가지 방법이다. 후자 가운데 가장 중시하였던 것은 가사와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西周 中期 引詩 또는 賦詩는 樂敎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였다.

樂敎는 가사의 중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春秋 中期 이후로 引詩, 賦詩의 풍습이 성행하게 되자 그 대상은 雅, 頌, 國風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채시관풍에 따른 해석과 가사 본연의 의미와 모순이 점차 현저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회는 ‘賦詩言志’의 현실적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詩序〉와 작품 가사 本義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수용하게 되어 樂敎를 정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賦詩言志’는 제후들 사이의 주요한 외교적 수단이 되었으며, 文辭 본연의 引伸과 解釋이 각국 시가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詩論〉의 저술에 있어 그 근본적 토대가 다른 이유인 동시에, 〈詩論〉의 〈關雎〉, 〈卷耳〉, 〈漢廣〉, 〈采芣〉 등과 같은 시들에 대한 평론과 〈詩序〉의 평론의 관점이 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周代 樂敎의 결과적 성과로서 〈詩序〉의 출현과 시 本義를 추구하는 과정은 ≪詩經≫의 해석관에 있어 일대 전환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초기 儀式의 기능을 중시하던 것이 후대에는 美刺說에 그 중심점이 옮겨지게 된다. 이는 동시에 周代의 禮樂 문화가 禮義之敎로부터 德義之敎로의 전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禮樂의 붕괴시기인 春秋 말기에는 官學이 무너지고 음악에 관여하던 사람들이 민간으로 흩어져 들어가게 되어 원래는 大師가 관장하던 樂敎와 大司樂이 관장하던 樂語의 가르침은 孔子로 회귀하는 과정 속에서 융합된 되어,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인의 출로에 따라 가르치던 시기에 樂敎와 樂語之敎의 결합으로 이뤄진 〈詩論〉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詩論〉은 〈詩序〉의 전통이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필연적 당위성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결과물인 것이다.

漢代 〈詩序〉의 유가 시가이론 전승발전과정에 있어 〈詩論〉은 그 중간 매개단계에 해당한다. 위로는 〈詩序〉가 세운 시가 전통에 아래로는 후기 유가의 실제시의 내용에 근거한 평론의 출현을 예고한 일성이었던 것이다. 孔子 이후로 儒家는 여덟 유파로 나누어 전승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漢代 하나의 독립된 계파로 성립한 四家詩는 孔子가 세운 詩敎의 전통의 맥을 잇는 가장 영향력을 가진 지류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4. 나오는 말

〈詩論〉중에 논하고 있는 詩歌는 모두 60首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 〈隸而〉·〈角幡〉·〈河水〉 등 비교할 수 있는 공자평어는 53首에 해당된다. 그 시론과 시서의 53수에 대한 평어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 평론의 서술방법, 비평관점의 비교 결과는 아래와 같이 은 아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시론과 시서의 평론방식이 다른 경우. 〈詩論〉은 춘추시대 유행하던 단장취의의 형식을 취하였다. 시경의 몇 구절에 대하여 평론하거나 시구를 인용한 후, 주관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한 단어로 평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吾美之”、“吾信之”、“吾喜之”、“吾善之”와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단장취의의 방법과 감상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詩論〉의 형식은 작품 전체에 대한 체계적 서술로 이뤄진 〈시서〉의 형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 齊風 - 〈猗嗟〉(21, 22), 〈猗嗟〉(21, 22), 陳風 - 〈宛丘〉(21, 22), 曹風 - 〈鳩鳩〉(21, 22)

● 小雅 - 〈大田〉(25)

● 大雅 - 〈文王〉(21, 22)

● 周頌 - 〈烈文〉(6), 〈昊天有成命〉(6)

(2) 〈詩論〉과 〈詩序〉의 평어의 관계가 서로 지지, 보충 혹은 규명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논점이 일치하고 있는 작품은 모두 35수이다. 관점의 일치는 〈詩論〉의 情志論, 禮樂論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 國風

- 周南 - 〈葛覃〉(16,24), 〈兔置〉(23), 〈螽斯〉(27)
- 召南 - 〈鵲巢〉(10, 11, 13), 〈甘棠〉(10, 13, 15, 24)
- 邶風 - 〈綠衣〉(10, 16), 〈燕燕〉(10, 16), 〈柏舟〉(26)
- 鄘風 - 〈墻有茨〉(28)
- 衛風 - 〈木瓜〉(18, 19, 20)
- 王風 - 〈兔爰〉(25)
- 齊風 - 〈東方未明〉(17)

● 小雅

- 〈十月之交〉(8), 〈雨無正〉(8), 〈節南山〉(8), 〈小旻〉(8), 〈小宛〉(8), 〈小弁〉(8), 〈巧言〉(8), 〈天保〉(9), 〈祈父〉(9), 〈黃鳥〉(9), 〈菁菁者莪〉(9), 〈無將大車〉(21, 22), 〈湛露〉(21, 22), 〈鹿鳴〉(23), 〈谷風〉(26), 〈蓼莪〉(26), 〈何人斯〉(27)

● 大雅

- 〈大明〉(7), 〈皇矣〉(7), 〈文王〉(21, 22), 〈生民〉(24), 〈蕩〉(25)

● 周頌

- 〈清廟〉(5, 6, 21)

(3) 〈詩論〉과 〈詩序〉의 평론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경우. 〈詩論〉은 작품 실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평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서〉는 “나라의 일을 개인에게 관련짓는”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시서〉의 논조는 기본적으로 시를 윤리와 정치와의 연관에서 평론하고 있는 것이다.

- 周南 - 〈關雎〉(10, 11, 12, 14), 〈樛木〉(10, 11, 12), 〈漢廣〉(11), 〈卷耳〉(29)

- 邶風 - 〈北風〉(27)

- 王風 - 〈揚之水〉(17), 〈采葛〉(17)
- 鄭風 - 〈將仲子〉(17), 〈褰裳〉(29)
- 唐風 - 〈杕杜〉(18, 20), 〈蟋蟀〉(27)
- 檜風 - 〈隰有萋楚〉(26)

《詩經》은 周初로부터 春秋中期에 이르는 시기 약 500여년간에 걸쳐 採集, 奉獻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詩集이다. 지금껏 학계에서는 시집에 대한 해설로 《毛詩序》가 유일하였다. 이제 秦火로 사라졌던 지하자료인 上博楚簡《詩論》(戰國 中晚期)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孔子를 대표로 하는 유가계열 시론의 지형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시경의 원래 형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逸詩, 刪詩 등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詩序(毛詩序)》는 周代 樂敎의 결과물이며, 上博楚簡《詩論》은 樂敎와 樂語之敎의 융합물이라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즉 孔子는 “詩에서 흥하고 禮에서 세우고 樂에서 이뤄진다”라는 원칙을 근거로 사대부들에게 전통 詩敎를 전수하였으며,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펼침(賦詩言志)”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즉《詩序》의 출현은 周代 樂敎의 결과물이라면,《詩論》은 시 본의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해석론인 것이다. 말하자면 초기 儀式의 기능을 중시하던 논점이 후대에는 美刺說로 그 중심점이 옮기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周代의 禮樂문화가 禮義之敎로부터 德義之敎로의 전변하게 됨을 의미한다.《詩論》등장의 의미와 가치는 禮樂의 붕괴시기인 春秋말기에는 官學이 무너지고 음악에 관여하던 사람들이 민간으로 흩어져 들어가게 되어 원래는 大師가 관장하던 樂敎와 大司樂이 관장하던 樂語의 가르침이 孔子로 회귀하는 과정 속에서 융합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시가집이 만들어진 이후《詩論》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년의 공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孔子 이전 이미 시에 관한 해설서가 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上博楚簡《詩論》에서는 논의의 전개가 效用論, 禮樂論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통적인 儒家시론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詩論》→《毛詩序》로 이어지는 儒家시론의 맥락, 전승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산견된 자료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情志論이라는 입각점이 새롭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며, 禮樂이라는 제약과 함께 情과 志의 작용이 시 뿐만 아니라 문예 창작론 전반에 걸쳐 비평의 준거로써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先秦시기 시학이론 가운데 〈詩論〉의 시 분의에 따른 비평관점은 당시 시학이론의 발전과정에 있어 시집 출현이전과 이후, 漢代 〈毛詩序〉를 있는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參考文獻>

- 蔣人傑 《說文解字集注》，上海古籍出版社，1996. 10.
- 荊門市博物館 編者 《郭店楚墓竹簡》，文物出版社，1998.
- 王小盾 〈詩六義原始〉《揚州大學中國文化研究所集刊》第一輯，江蘇古籍出版社，1998.
- 王小盾 《中國早期藝術與宗教》，東方出版中心，1998.
- 王小盾 〈從漢四家詩說之異同看〈詩序〉的時代〉《文史》第五十一輯.
- 馬承源 主編，《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上海古籍出版社，2001. 11.
- 朱淵清 廖名春 主編 《上海博物館藏楚竹書研究》，上海書店出版社，2002. 3.
- 黃人二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研究》(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2002. 6.
- 何琳儀 《戰國文字通論》上下冊，江蘇教育出版社，2003. 1.
- 馬銀琴 〈《毛詩》首序產生的時代〉《文學遺產》第2期，2002.
- 劉信芳 《孔子詩論述學》，安徽大學出版社，2003.
- 黃懷信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詩論〉解義》，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4. 8.
-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上, 下)》傳統文化研究會，2004.
- 姜信碩 〈《上博楚簡·詩論》評語에 반영된 詩論〉《中國語文學論集》 제50집，2008. 6.

I. 上博楚簡《詩論》과 현행본《詩經》의 비교⁹⁾

		楚簡本	現行本
竹 簡 排 列 順 序	5	〈清廟〉……“秉 旻 (文)之 惠 (德)”, ……;“肅 雝 (雍)”	《周頌清廟》：“肅 雝 顯相，濟濟多士，秉 文之德。”
		“……多士，秉 旻 (文)之 惠 (德).”	
	6	〈烈文〉曰：“乍 競 佳(唯)人，不(丕) 顯佳(唯)惠(德)，於 乎 (乎)，前王不忘!”	《周頌烈文》：無 競 維人，四方其訓之，不 顯維德，百 璧 其刑之，於乎，前王不忘！
		“昊=(昊天)有城(成)命，二后受之”	
	7	……“ 懷 (懷)尔(爾)票(明)惠(德)”	《大雅皇矣》：“帝謂文王，予 懷 明德”
		“又(有)命自天，命此文王.”……	
	22	〈 甸 (宛)丘〉曰：“ 甸 (洵)又(有)情， 而亡望.”	《陳風宛丘》：“洵有情兮，而無望兮.”
		〈於(猗)差(嗟)〉曰：“四 矢 反(變) 弁， 曰 (以)御 亂 (亂).”	
		〈 巨 (鳴)鳥(鳩)〉曰：“ 兀 (其)儀一 氏(兮)，心如結也.”，是“心如結.”	

9) 楚簡本에 인용된 詩篇과 詩句를 현행본《詩經》과 비교한 것이다. 楚簡本에 인용된 시구는 모두 69자이며, 그 가운데 정확히 4자만 현행본에서 다른 글자로 쓰였다. 제 6간의 “乍~~競~~唯人”이 현행본에는 “無~~競~~維人”로, 제 7간의 “~~懷~~尔(爾)票(明)惠(德)”이 현행본에는 “予~~懷~~明德”로, 제 22간의 “四~~矢~~反”가 현행본에는 “四~~矢~~反”으로 쓰였다. 이처럼 대조해 볼 때, 현행본과 다른 글자로 쓰인 4자 가운데 두 자, 즉 無는 乍로 通假되고 反은 弁으로 通假되었다. 따라서 의미상으로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현행본에서는 ‘兮’자가 추가 되기도 하였다. 표본오차 5.7%~2.9% 범위이다. 시편명은 55편이 보이며, 이 가운데 44편은 완전히 일치하고, 3편은 편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행본에서 추정이 가능한 편명이 5편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十月〉(현행본의 〈十月之交〉), 〈將仲〉(현행본의 〈將仲子〉), 〈有宛〉(현행본의 〈宛爰〉), 〈涉溱〉(현행본의 〈褰裳〉), 〈將大車〉(현행본의 〈無將大車〉)이다. 다음으로 〈仲氏〉, 〈陽陽〉, 〈河水〉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내용상 현행본에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제목이 없는 3편을 제외하면, 현행본과 일치가능한 편명은 모두 52편으로 표준 오차범위 전체 작품 가운데 84.6%에 해당한다. 이상은 劉小力的 用《詩論》分析《詩經》의 可信度(인테넷)의 견해를 인용.

		“〈文王〉[曰：“ 文 王在上，於邵于天”	《大雅·文王》：“文王在上，于昭于天”
--	--	------------------------------	---------------------

II. 上博楚簡 〈詩論〉 과 〈毛詩序〉 의 편명·평어의 비교

篇名		〈詩論〉의 評語와 〈詩〉 小序의 評語		
楚簡本	現行本	〈詩論〉의 評語	〈毛詩〉의 評語	
訟	清廟	周頌 清廟	<p>〈清廟(廟)〉, 王惠(德)也。至矣! 敬宗(廟)之豐(禮), 曰(以)爲(其)畜(本), 秉(文)之惠(德), 曰(以)爲(其)業(業).(5): 〈清廟〉는 왕이 천하를 통일한 德에 관한 것으로 극치를 이룬다! 즉 〈清廟〉는 宗廟의 예를 존경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고, 문왕의 덕을 받드는 것을 본업으로 삼았다. “...多土, 秉(文)之惠(德)”. 虍(吾)敬之.(6): [〈清廟〉는] “...수많은 선비들이 문왕의 덕을 받들어”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존경하고, <清[廟]>](21): 〈清廟〉는</p>	<p>清廟, 祀文王也. 周公, 既成洛邑, 朝诸侯, 率以祀文王焉: 〈청묘〉는 문왕에게 제사하는 시이다. 주공은 낙읍을 완성하고 제후들에게 조회를 받은 다음 제후들을 거느리고 문왕에게 제사하였다.</p>
	刺文	周頌 烈文	<p>〈刺(烈)文(文)〉曰: “乍(唯)人, 不(丕)顯(唯)惠(德), 於(乎) (乎), 前王不忘!” 虍(吾)敬(悅)之.(6): 〈烈文〉은 “더 강함이 없는 사람을” “더 드러날 수 없는 덕을” “아! 지난날의 왕을 잊지 못하리로다”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나</p>	<p>烈文, 成王即政, 诸侯助祭也: 〈열문〉은 성왕이 정사를 친히 다스림에 제후들이 제사를 도운 것을 읊은 시이다.</p>

			는 그 시를 매우 즐겨워하고, 昊=(昊天)有成命, 二后受	
	昊天 又城 命	周頌 昊天 有成 命	昊(昊天)有成命, 二后受 之, 貴(顯)矣(6): “천제 께서 이루신 명이 있으시거늘, 두 임금(문왕, 무왕)께서 받으시니 라”와 같이 존귀하고 빛나는 노래 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昊天有成命, 郊祀天地也: <호 천유성명>은 천지에게 교사하는 시이다.
	失篇 名	皇矣	“襄(懷)尔(爾)明(明)惠(德)”, 害(曷)? 城(誠)謂(謂)之也.(7): [《 大雅皇矣》편은 “상제께서 문왕 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밝은 덕을 갖도록 하겠노라”라고 했는데, 무 엇을 가리키는 뜻인가? 이는 상제 께서 진심으로 문왕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皇矣, 美周也. 天監代殷, 莫若 周, 周世世修德, 莫若文王: <황 의>는 주나라를 찬미한 시이다. 하늘이 은나라를 대신할 나라를 살 펴보니 주나라만한 나라가 없었고, 주나라에 대대로 덕을 닦은 분은 문왕만한 이가 없었다.
大夏	大明	大雅 大明	“又(有)命自天, 命此文王.” 城 (誠)命之也. 信矣! 孔=(孔子) 曰: 此命也夫. 文王(唯)谷(裕) 也, 得(得)乎(乎)? 此命也.(7): “천명이 하늘로부터 내린지라, 문 왕에게 명하시기를”라는 시구는 진실로 문왕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 참으로 진실 된 것이로다! 孔子가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천명이라. 문왕이 하늘로부터 명령을 얻고자 한들 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명령인 것이다. [문왕 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것이다.]	大明, 文王有明德, 故(天)复命 武王也: <대명>은 문왕이 밝은 덕 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이 다시 문 왕에게 명함을 읊은 시이다.
少	十月 小	十月	<十月> 善(譚)言(言). (8): <	十月之交, 大夫刺幽王也: <십

夏	雅	之交	小雅十月之交》는 풍자를 훌륭하게 표현하였고,	월지교》는 대부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다.
		雨亡政	雨無正 〈雨亡政〉 · 〈 <small>節</small> 南山〉 皆言上之衰也, 王公耻之. (8): 小雅 〈雨無正〉 과 〈節南山〉 은 모두 왕실의 쇠락을 읊은 노래이기 때 문에, 王公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雨無正, 大夫刺幽王也. 雨自上 下者也. 众多如雨而非所以为政也: 〈우무정〉 은 대부가 유왕을 풍자 한 시이다. 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정령이 비처럼 내려왔으나 올바른 정사는 아니었다.
		節南山	節南山	節南山, 家父刺幽王也: 〈절남 산〉 은 가부가 유왕을 풍자한 시이 다.
		少旻	少旻 〈少旻(文)〉 多忖(疑矣), 言 不中志者也.(8): 〈小旻〉 은 많은 의문을 표현한 것인데, 이 의문은 자신의 뜻과 어울리지 않음을 읊 은 것이다.	小旻, 大夫刺幽王也: 〈소민〉 은 대부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다.
		小宛	小宛 〈小 _宛 (節宛)〉 丕(其)言不亞 (惡), 小有 _宛 (<small>焦</small> 仁)安. (8): 〈小 宛〉 의 가사는 지나친 원망의 기 색이 없으며, 다만 어질지 못한 자 들에 대한 풍자가 섞여 있다.	小宛, 大夫刺宣王也: 〈소완〉 은 대부가 선왕을 풍자한 시이다.
		小弁	小弁 〈小 _弁 (弁)〉 · 〈考(巧)言〉 則 言 _巧 (<small>諛</small> 讒)人之害也. (8): 〈小 弁〉 과 〈巧言〉 은 함부로 참언하 는 사람의 해로움을 노래한 것이 다.	小弁, 刺幽王也. 太子之傅作焉: 〈소변〉 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니, 태자의 사부가 지은 것이다.
		考言	巧言	巧言, 刺幽王也. 大夫伤于讒, 故 作是诗也: 〈교언〉 은 유왕을 풍자 한 시이니, 대부가 참언에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이 시를 지은 것 이다.
伐木	伐木 <small>實</small> (實實)咎於其也. (9): [〈伐木〉 은] 자기 자신의 허물에	伐木, 燕朋友故舊也. 自天子至 于庶人, 末有不須友以成者. 親親以		

		대하여 숨김없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睦, 友賢不棄, 不遺故舊, 卽民得歸厚矣: 〈별목〉은 봉우와 고구를 연약한 시이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벼를 이용하여 이루지 않은 자가 없으니, 친척을 친애하여 화목하고 어진이를 벗삼아 버리지 않으며 고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
天保	天保	〈天保〉 丌(其) 導(得) 象(祿) 蔑(疆) 矣, 巽(饋) 寡(寡), 惠(德) 古(故) 也. (9): 《小雅鹿鳴之什天保》는 爵祿과 만수무강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는 孝享하는 酒食이 많지 않지만, 그 덕만은 옛날과 같이 변함없기 때문인 것이다.	天保, 下報上也. 君能下下, 以成其政, 臣能歸美, 以報其上焉: 〈천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답한 시이다. 군주는 아랫사람에게 몸을 낮추어 그 정사를 이루고, 신하는 아름다움을 군주에게 돌려 그 윗사람에게 보답한 것이다.
諱父	祈父	〈諱父〉 之 賅(責), 亦 又(有) 曰(以) 也. (9): 〈祈父〉의 풍자 또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祈父, 刺宣王也: 〈기부〉는 선왕을 풍자한 시이다.
黃鳥	黃鳥	〈黃鳥〉 則 困 而 谷(欲) 反 丌(其) 古 也, 多 恥 者 丌(其) 恚(病) 之 疇(乎)? (9): 《小雅鴻雁之什黃鳥》는 곤궁에 처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많은 곤경을 겪은 사람은 곧 이를 마음의 병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黃鳥, 刺宣王也: 〈황조〉는 선왕을 풍자한 시이다.
菁菁者莪	菁菁者莪	〈菁菁(菁菁)者莪〉 則 曰(以) 人 益(益) 也. (9): 《小雅南有嘉魚之什菁菁者莪》는 다른 사람으로	菁菁者莪, 乐育材也. 君子能长育人材, 则天下喜乐之矣: 〈청청자아〉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즐거워

			<p>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을 노래한 것이고,</p>	<p>한 시이니, 군자가 인재를 키우고 기르면 천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p>
	折杜	<p>杖 杜¹⁰⁾</p>	<p>〈折杜〉则情憇(喜)兀(其)至也■(18): 〈折杜〉의 情은 (집에) 돌아옴을 기뻐한 것이다. 虞(吾)曰(以) 〈折杜〉 得(得)雀(爵)□(20):〈杖杜〉로부터 爵位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것이다.]</p>	<p>杖杜, 勞還役也: 〈杖杜〉는 부역에서 돌아옴을 위로한 시이다</p>
	崇 崇 者芋	<p>裳 裳 者華</p>	<p>〈崇=(崇崇)者芋〉 則(9)…… 贵也(21): 《小雅甫田之什》중의 〈裳裳者華〉는 곧 ……이다. 그 표현이 매우 화려하다.</p>	<p>裳裳者華, 刺幽王也. 古之仕者世祿, 小人在位, 則讒諂並進, 棄賢者之類, 絕功臣之世焉: 〈상상자화〉는 유왕을 풍자한 시이다. 옛날의 벼슬하는 자들은 대대로 녹을 받아, 소인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함께 진용되어 현자의 유를 버리고 공신의 대를 끊게 된 것이다.</p>
邦 風	關 疋	<p>國 風 周南 關雎</p>	<p>〈關(關)疋〉之改(怡)■……, 〈關(關)疋〉 曰(以)色俞(喻)於豐(禮).(10): 〈關雎〉는 남녀 관계의 기쁨에 대하여,……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예의를 비유하고 있다. 〈關(關)疋〉之改(怡), 則兀(其)思■(贖)矣■.(11): 〈關雎〉의 즐거움은 시인의 생각이 풍부함을 노래하는 것이고, 好, 反內(納)於豐(禮), 不亦能改(怡)乎(乎)?■(12): [〈關雎〉]는 혼인에</p>	<p>矣雎, 后妃之德也. ……矣雎亦得淑女以配君子, 忱在进贤, 不淫其色, 哀窈窕思贤才而无伤善之心焉, 是矣雎之义也. 〈관저〉는 후비의 덕을 읊은 것이요 풍화의 시초이니,…… 〈관저〉는 숙녀를 얻어 군자에 짝함을 즐거워하고 현자를 등용함을 걱정하여 여색에 빠지지 아니하여 요조 숙녀를 서글퍼하고 현재를 생각하여 선을 상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관저〉의 의의이다.</p>


		<p>대한 즐거움을 노래한 것으로, 이 즐거움을 통하여 '禮'를 표현한 것인데, 또한 비유로의 전환이 아니겠는가? 兩矣, 丌(其)四章則兪(喻)矣. 呂(以)琴瑟(瑟)之歡(悅), 恣(擬)好色之愿(願); 呂(以)鐘鼓之樂, [擬婚姻之](14): [〈關雎〉의 제3장은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고, 제4장은 비유적 표현이다. 琴瑟을 타는 기쁨을 숙녀를 좋아하는 마음을 비유하였고, 鐘鼓의 음악으로 [혼인의 즐거움을 비유하였다.]</p>	
楛木	周南 楛木	<p>〈楛木〉之占(時)(10): 〈楛木〉은 時運에 대하여, 楛(楛)木之占(時), 則呂(以)丌(其)象(祿)也 (11): 〈楛木〉의 時運은 군자가 福祿을 얻을 수 있는 운명에 관한 것이고, 〈楛木〉福與(斯)才(在)君(君子), (12): 〈楛木〉의 福祿은 군자가 [시운을 만난 것이 아니리오]</p>	<p>楛木, 后妃逮下也. 言能逮下而无嫉妒之心焉. 〈규목〉은 후비의 은덕이 아래에 미침을 읊은 것이니, 은덕이 아랫사람들에게 미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p>
灘塗	周南 漢廣	<p>〈灘塗〉之智(智), 則智(智)不可得(得)也(11): 〈漢廣〉의 지혜란 얻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p>	<p>漢廣, 德廣所及也. 文王之道被于南国, 美化行乎江汉之域, 無思犯禮, 求而不可得也: 〈한광〉은 덕택이 널리 미침을 읊은 것이다. 문왕의 도가 남쪽나라에 입혀져 아름다운 교화가 강한의 지역에 행해져서 예를 범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p>

	<p>鹊棹</p>	<p>召南 鹊巢</p>	<p><鹊巢>之遯(归) (10) <鹊巢>之遯(歸), 則德(寔離)者[遠矣](11): <鹊巢>의 혼인은 곧 이별하는 자가 [멀리 헤어짐을 노래하는 것이다.] <鹊巢>出(以)百兩, 不亦又德(離)乎(乎)? (13): <鹊巢>의 많은 수레로 시집가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은 또한 부모의 집을 멀리 떠나간다는 것 아닌가?</p>	<p>鹊巢, 夫人之德也. 国君이积行累功, 以致爵位, 夫人起家而居有之, 德如鸣鳩, 乃可以配焉. <작소>는 부인의 덕을 읊은 것이다. 국군이 훌륭한 행실과 업적을 쌓아 작위를 이루었는데, 부인이 집에서 일어나 차지하니 덕이 시구와 같아야 짝할 수 있는 것이다.</p>
	<p>甘棠</p>	<p>召南 甘棠</p>	<p><甘棠>之保(愛),(10): <甘棠>은 경애하여 뜻을 기린다는 내용이고, <甘棠>(13) 及(其)人, 敬(愛)其(其)杗(樹), 其(其)保(愛)厚矣! (14) 甘棠之(愛), 召(以)公[之故也].(15): [<甘棠>은] 그분을 그리워함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분을 비유하는 나무를 경애하여 기리고자 하니 어찌 돈후함이 없으리요! 팔배나무에 애정을 품는다는 것은 邵公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虎(吾)曰(以)《甘棠》(得)宗(廟)之敬(性)古(固)然, 甚貴(其)人, 必敬(其)位, 敬(悅)其(其)人, 必好(其)所爲. 亞(惡)其(其)人者亦然.(24): 나는 <甘棠>으로부터 宗廟에 대한 존경심을 배웠다. 이는 곧 사람의 본성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을</p>	<p>甘棠, 美召伯也. 召伯之教, 明于南国. <감당>은 소백을 찬미한 시이니, 소백의 교화가 남쪽 나라에 밝혀진 것이다.</p>

		경외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가 한 일들을 좋아하게 되기 마련이고, 싫어한다면 이와 정반대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綠衣	北風 綠衣	綠衣之思,(10): <綠衣>는 그리움에 관하여 노래한 것이다. <綠衣>之思(憂), 思古人也(16): <綠衣>의 시름은 故人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綠衣, 卫庄姜이 伤己. 妾上僭, 夫人失位而作是诗也. <녹의>는 위나라 장강이 자신을 서글피한 시이다. 첩이 위로 참람하여 부인이 지위를 잃자, 이 시를 지은 것이다.
鸛 鸛	北風 鸛 鸛	<鸛(鸛)鸛(鸛)>之情(10). 害(何)曰童(終)而皆(賢)於(其)初者也(10): <鸛鸛>은 情을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들이 표현하려는 보다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 <鸛(鸛)鸛(鸛)>之情, 曰(以)其(其)獨(篤, 獨)也(16): <鸛鸛>에서 노래한 情이란 홀로 남게 되는 외로움을 가리킨다.	鸛鸛, 卫庄姜, 送归妾也. <연연>은 위나라 장강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첩을 전송한 시이다.
葛 藟	周南 葛藟	<葛(葛)藟(藟)>得(得)氏初之诗, 民膏(性)古(固)然(16). 见(其)隍(美), 必(谷)欲(欲)反一本. 夫(葛)之见(訶)也, 则(16): <葛藟>편으로부터 인간의 근본을 엿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 근본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취닝쿨(葛藟)을 노래한 것은 [있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曰(以)口(葉)藟(藟)之古(故)也(16). 后稷之见貴也, 则(以)文武之德(德)也(16)	葛藟, 后妃之本也. 后妃在父母家, 则志在于女功之事, 躬儉節用, 服澣濯之衣, 尊敬師傅, 则可以歸安父母, 化天下以 婦道也. <갈담>은 후비의 근본을 읊은 것이다. 후비가 부모의 집에 있을 적에 뜻이 女工의 일에 있어 몸소 검소하고 절용하며 땀 옷을 입고 師傅를 존경하면 돌아가 친정부모에게 문안을 올려 婦道로써 天下를 教化할 수 있는 것이다

		(24): [<small>周南·葛覃</small>]의 <small>晞</small> 당굴이 칭송되어지는 것은] 그 일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이며, <small>后稷</small> 이 존경을 받는 것은 문왕과 무왕의 덕행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東方未明	齊風 東方未明	東方未明>有利 <small>言</small> (詞) .(17): <東方未明>의 노래에는 풍자하는 언사가 있다.	東方未明, 刺無節也. 朝廷兴居無節, 號令不時, 挈壺氏不能掌其職焉. <동방미명>은 절도가 없음을 풍자한 시이다. 조정이 일어나고 거처함이 절도가 없고 호령이 제때에 맞지 않아 설호씨(시각을 맡은 관원)가 그 직책을 관장하지 못한 것이다.
將中	鄭風 將仲子	<將(將)中>之言, 不可不韋(畏)也. (17): <將仲子>에 나오는 '말씀'들이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음을 노래한 것이다.	將仲子, 刺莊公也. 不勝其母以害其弟. 弟叔失道而公弗制, 祭仲諫而公弗聽, 小不忍以致大亂焉. <장중자>는 莊公을 풍자한 시이다. 그 어머니가 아우만을 사랑함을 이겨 내지 못하여 그 아우를 해쳤다. 아우인 共叔이 도리를 잃었는데, 公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祭仲이 이를 諫하였으나 公이 듣지 아니하여, 작은 일을 참지 못하여 큰 난리를 이룬 것이다.
湯之水	王風 揚之水	<湯(揚)之水>兀(其)恚(愛)如 <small>愁</small> 烈烈. (17): <揚之水>는 부인과의 이별의 슬픔을 강렬히 읊은 시이다.	揚之水, 刺平王也. 不撫其民, 而遠屯戍于母家, 周人怨思焉. <양지수>는 平王을 풍자한 시이다. 그 백성들을 어루만지지 않고 멀리 母家(申나라)에 주둔시켜 수자리살게

			하니, 周나라 사람들이 원망한 것이다.
菜菔	王風 菜菔	<p>〈菜菔(葛)〉之^牙志(愛)婦.(17): 〈菜菔〉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p>	<p>采葛, 權諛也. 〈채갈〉은 참조하는 말을 두려워한 시이다.</p>
木苽	衛風 木苽	<p>因木苽之保(報), 曰(以)兪(喻) 兀(其)寘(願)者也.(18): 木瓜로 보답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木瓜〉又(有)寘(願)而未得(得)達也. (19): 〈木瓜〉 시에는 바라는 마음을 감추고 표현해 내지 않음이 있다. [《木瓜》得] 番(而)帛之不可法(去)也. 民售(性)古(固)然, 兀(其)隈(離)志必又(有)曰(以)兪(喻)也. 兀(其)言又(有)所載而后內(納), 或前之而后交, 人不可斛也.(20): [〈木苽〉는] 예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의 성은 원래 그런 것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반드시 펼쳐내려 한다면, 이른바 선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려 할 때 수레에 물건을 실고 가며, 그런 연후에야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혹은 먼저 예물을 보내고 난 후 다시 상대방과 대면할 수 있으니, 예물 없이 바로 상대방과 대화 할 수</p>	<p>木瓜, 美齊桓公也. 邠國有狄人之敗, 出处于漕, 齊桓公救而封之, 遺之車馬器服焉, 邠人思之, 欲厚報之, 而作是詩也.</p> <p>〈목과〉는 제나라 환공을 찬미한 시이다. 위나라가 오랑캐 사람들에게 패하여 나가 漕邑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제나라 환공이 구원하여 나라를 봉해주고 거마와 기복을 보내주니, 위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후히 보답하려 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p>

<p>失篇名</p>	<p>鄘風 柏舟</p>	<p>없는 것이다.  (溺強)志, 既曰天也, 猶又 (有)愆(損怨)言. (19):[<柏舟>는] 자신의 의지로써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하늘만을 외치는데, 이는 곧 원망하는 말이다.</p>	<p>柏舟, 共姜自誓也. 衛世子共伯, 蚤死, 其妻守義, 父母欲奪而嫁之, 誓而弗許, 故作是詩以絕之. <백주>는 共姜이 스스로 맹세한 시이다. 衛나라 世子인 共伯이 일찍 죽자, 그 아내 共姜이 절개를 지키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들이 수절하려는 뜻을 빼앗아 시집보내려 했으므로 公姜은 맹세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를 지어 거절한 것이다.</p>
<p>輶 大車</p>	<p>小雅 < 無將大車></p>	<p><輶(將)大車>之輶也, 則曰 (以)爲不可女(如)可(何)也?(21): <無將大車>의 소란스러움이란 자신이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다.</p>	<p>無將大車, 大夫悔將小人也. <무장대거>는 대부가 소인과 더불어 일한 것을 뉘우친 시이다.</p>
<p>審 露</p>	<p>小雅 < 湛露></p>	<p><審(湛)露(露)>之賤(賤)也, 兀(其)猶輪與?(21): <小雅·南有嘉魚之什·湛露>의 풍요로움은 군신의 연회가 영원히 이어지는 애정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p>	<p>湛露, 天子燕諸侯也. <담로>는 천자가 제후에게 연악을 베풀어 줌을 읊은 시이다.</p>
<p>甸 丘</p>	<p>陳風 < 宛丘></p>	<p><甸(宛)丘> 虐(吾)善之 (20):<陳風·宛丘>의 시편을 참으로 아름답다고 여기고, <甸(宛)丘>曰: “甸(洵)又(有)情, 而亡望.” 虐(吾)善之.(22): <宛丘>편의 “진실로 정감은 있으나, 우러러볼 것 없다네.”라는 시구를 좋아하고,</p>	<p>宛丘, 刺幽公也. 淫荒昏亂, 游蕩无度焉. <완구>는 幽公을 풍자한 시이니, 방탕하고 혼란하며 유탕하여 법도가 없어서였다.</p>

<p>於差</p>	<p>魏風 猗嗟</p>	<p><於(猗)差(嗟)>虞(吾)憲(喜)之(21): <齊風·猗嗟>를 매우 애호하며, <於(猗)差(嗟)>曰: “四矢奭(變)弁反), 曰(以)御(亂).”, 虞(吾)憲(喜)之(22): <猗嗟>편의 “네 개의 화살이 똑 같은 곳에 꽃히니 세상의 난을 막아주네”라는 시구를 즐거이 읊조리며,</p>	<p>猗嗟, 刺魯莊公也. 齊人傷魯莊公, 有威儀技藝, 然而不能以禮防閑其母, 失子之道, 人以為齊侯之子焉. <의차>는 노나라 장공을 풍자한 시이다. 齊나라 사람들이 魯나라 莊公이 위와 기예가 있으나 禮로써 그 어머니를 防閑하지 못하여 자식의 도리를 잃어 사람들이 齊侯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서글퍼한 것이다.</p>
<p>巨鵠</p>	<p>曹風 鵠</p>	<p><巨鵠>虞(吾)信之(21): <曹風·鵠>의 노래를 진실하다고 믿으며, <巨(鵠)鵠(鳩)>曰: “兀(其)儀一氏, 心如結也.” 虞(吾)信之(22): <鵠>편의 “그威儀 한결 같으니, 마음이 맺혀 있는 듯하네.”라는 시구의 신실함을 믿으며,</p>	<p>鵠, 刺不壹也. 在位无君子, 用心之不壹也. <시구>는 마음이 한결 같지 않음을 풍자한 시이니,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군자가 없어 마음을 씀이 한결같지 못하였다.</p>
<p>文王</p>	<p>大雅 文王</p>	<p><文王>虞(吾)兪(美)之(21): <大雅·文王之什·文王>을 진정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다. <文王> [曰: “罔]王才上, 於邵于天” 虞(吾)兪(美)之(22): <文王>편의 “문왕께서 위에 계시니, 아 천하에 그의 덕행 밝게 빛나고 있네.”라고 한 시구를 찬미한다.</p>	<p>文王, 文王受命作周也. <문왕>은 문왕이 천명을 받아 周나라를 일으킴을 읊은 시이다.</p>
<p>麋(鹿)鳥</p>	<p>小雅 鹿鳴</p>	<p><麋(鹿)鳥(鳴)>曰(以)乐(詞) (詞), 而會(以)道, 交見善而(傲), 冬(終)虞(乎)不(獸)人(23): <小雅·鹿鳴>은 음악으로 시작하고,</p>	<p>鹿鳴, 燕群臣嘉賓也. 既飲食之, 又實而(帛)筐(篚), 以(將)其(厚)意, 然後, 忠臣嘉賓, 得(盡)其(心)矣. <녹명>은 여러 신하들과 아름다운 손님을 燕饗</p>

		도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교제는 착한 것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것이니 시종여일 싫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하는 시이다. 이미 음식을 먹이고 또 폐백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 후의를 받들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충신과 아름다운 손님이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兔置	周南 兔置	<兔置(置)> 丌(其)甬(用)人, 則寔(吾)取(23): <兔置>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 내가 손으로 뽑는다.	兔置, 后妃之化也. 矣睢之化行, 则莫不好德, 贤人众多也. <토치>는 후비의 교화를 읊은 것이니, <관저>의 교화가 행해지면 덕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어 현인이 많은 것이다.
葛覃	周南 葛覃 ¹¹⁾	曰(以)口(葉)藪(姜)之古(故)也. 后稷之見貴也, 丌 则曰(以)文武之惠(德)也丌 (24): [<周南·葛覃>의 칩덩굴이 칭송되어지는 것은] 그 앞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이며, 后稷이 존경을 받는 것은 문왕과 무왕의 덕행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葛覃, 后妃之本也. 后妃在父母家, 则志在於女功之事, 躬儉節用, 服澣濯之衣, 尊敬師傅, 则可以歸安父母, 化天下以婦道也.: <갈담>은 后妃의 근본을 읊은 것이다. 后妃가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뜻이 여공의 일에 있어 몸소 검소하고 절약하여 땀 옷을 입고 師傅를 존경하면 돌아가 친정 부모에게 문안을 올려 부도로써 천하를 교화할 수 있는 것이다.
腸腸	大雅 蕩	<腸=(腸腸)> 少人丌 (25): <腸腸(<大雅·蕩之什·蕩>)>은 소인에 대한 노래이고,	蕩, 召穆公, 伤周室大壞也. 厉王無道, 天下蕩蕩 無綱紀文章. 故作是诗也. <탕>은 소목공이 周나라 왕실이 크게 무너짐을 서글퍼한 시이다. 厲王이 무도하니 천하가 탕탕하여 강기와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은 것이다.
又兔	王風 兔爰	<又(有)兔> 不聿(逢)昔(時)丌 (25): <王風·兔爰>은 때를 만	兔爰, 闵周也. 桓王失信, 诸侯背叛, 構怨連禍, 王师伤败, 君子不乐其

		나지 못한 인생을 한탄하는 시이고,	生焉。〈토원〉은 주나라를 민망히 여긴 시이다. 환왕이 신의를 잃자, 제후들이 배반하여 원한을 맺고 화를 연이어 왕의 군대가 패하니, 군자들이 그 삶을 즐거워하지 않은 것이다.
大田	小雅 大田	〈大田〉之 _公 (卒)章, 智(知)言而又(有)豊(禮) (25): 〈小雅·大田〉의 마지막 장은 시인의 지혜와 예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며,	大田, 刺幽王也。言矜(鰥)寡不能自存焉。〈대전〉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니, 홀아비와 과부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少明	小雅 小明	〈少明〉不[得歸].(25): 〈小雅·小明〉은 [돌아갈] 수 없음을 노래한 것이다.	小明, 大夫悔仕於亂世也。〈소명〉은 대부가 난세에 벼슬함을 뉘우친 시이다.
北白舟	邶風 柏舟	〈邶風·白舟〉悶 (26): 〈邶風·柏舟〉는 번민을 노래한 것이며,	柏舟, 言仁而不遇也。卫顷公之时, 仁人不遇, 小人在側。〈백주〉는 어질면서도 불우함을 읊은 시이다. 衛나라 頃公 때에 어진 사람이 불우하였고 소인이 군주의 측근에 있었다.
浴風	小雅 谷風	〈浴風〉 _忒 (背) (26): 〈小雅·谷風〉은 슬픈 상처에 관한 노래이고,	谷风, 刺幽王也。天下俗薄, 朋友道絶焉。〈곡풍〉은 유왕을 풍자한 시이니, 천하의 풍속이 야박해져서 봉우의 도가 끊긴 것이다.
蓼莪	小雅 蓼莪	〈蓼莪〉又(有)孝志 (26): 〈小雅·蓼莪〉는 효심을 노래한 것이며,	蓼莪, 刺幽王也。民人劳苦, 孝子不得终养尔。〈료아〉는 유왕을 풍자한 시이니, 인민들이 노고하여 효자가 봉양을 끝마치지 못한 것이다.
隰又長	檜風 隰有	〈隰(隰)又(有)長楚〉 _得 (得)而 _思 (悔)之也 (26): 〈檜風·隰有	隰有莪楚, 疾恣也。国人疾其君之淫恣, 而思無情欲者也。〈습유장

楚	菴楚	菴楚>는 언고 난 다음 후회함을 읊은 것이다.	초>는 방자함을 미워한 시이니, 국인들이 그 군주가 음탕하고 방자함을 미워하여 정욕이 없는 자를 그리워한 것이다.
可斯	小雅 何人 斯	<可斯> 雀(謂)之矣。 德(離) 兀(其所)惡(愛), 必曰: “嗟(吾)奚 舍之”, 賓贈氏(是)也 (27): <小雅 · 何人斯>에서 소인배를 힐책한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어찌 그를 잊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喪禮에 귀한 물건을 보내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何人斯, 苏公이刺暴公也. 暴公为王卿士而潛苏公焉. 故苏公作是诗以绝之. <하인사>는 소공이 폭공을 풍자한 시이다. 폭공이 왕의 경사가 되어 소공을 참조하므로 소공이 이 시를 지어 끊은 것이다.
七衛	唐風 蟋蟀	<七衛> 智(智)難 (27): <唐風 · 蟋蟀>은 어려움을 아는 것을 노래한 시이고,	蟋蟀, 刺晋僖公也. 俭不中禮, 故作是诗以閱之, 欲其及时以禮自虞乐也. 此晋也而谓之唐, 本其风俗, 忧深思远, 俭而用禮, 乃有尧之遗风焉. <실솔>은 진나라 僖公을 풍자한 시이니, 너무 검소하여 예에 맞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를 지어 민망히 여겨 그 때에 미쳐 예로써 스스로 즐거워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진나라 시인데 당풍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풍속을 근본하여 근심이 깊고 생각이 원대하며 검소하면서도 예를 따르고 堯帝의 유풍이 있기 때문이다.
中氏	周南 螽斯	<中氏> 君子 (27): <周南 螽斯(仲氏)>는 군자를 노래한 것이다.	螽斯, 后妃子孙众多也. 言若螽斯不妒忌, 则子孙众多也.<중사>는 후비의 자손이 많음을 읊은 것이

			니, 메뚜기와 같이 투기하지 않으면 자손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北風	北風 北風	<北風>不 <small>幽</small> (絶), 人之 <small>寘</small> (怨)(27): 《北風,北風》은 백성들의 절망을 읊은 시이다.	北風, 刺 <small>虐</small> 也. 卫国并为威 <small>虐</small> , 百姓不亲, 莫不相携持而去焉. <북풍>은 사나움을 풍자한 시이다. 위나라 사람들이 모두 위엄과 사나운 짓을 하니, 백성들이 친하지 못하여 서로 손을 잡고 떠나가지 않는 이가 없었다.
牆 又薺	鄘風 牆有 茨	<牆又薺> <small>蘄</small> (慎) <small>密</small> (密) 不 <small>智</small> (知)言 (28): <鄘風·牆有茨>는 신중하고 면밀하면서도 직접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牆有茨, 卫人刺其上也. 公子頑, 通乎君母, 国人疾之而不可道也. <장유자>는 위나라 사람들이 윗사람을 풍자한 시이다. 孔子 완이 군주의 어머니와 간통하니, 國人들이 이를 미워하였으나 입에 올려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青蠅	小雅 青蠅	<青蠅(蠅)> <small>智</small> (知)(28): <小雅·青蠅>은 讒人의 진위를 분별하게 하는 시이고,	青蠅, 大夫刺幽王也. <청승>은 대부가 幽王을 풍자한 시이다.
卷而	周南 卷耳	<卷(卷)而> 不 <small>智</small> (知)人 (29): <周南·卷耳>는 그리워하는 사람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그린 노래이다.	卷耳, 后妃之志也. 又當輔佐君子, 求賢审官, 知臣下之勤劳, 内有进贤之志, 而無險谗私谒之心, 朝夕思念, 至於忧勤也.<권이>는 후비의 뜻을 읊은 것이다. 또 마땅히 군자(남편)를 보좌하여 현자를 찾고 관직을 살펴 신하들의 수고로움을 알아야 하니, 안에 현자를 진용하려는 뜻이 있고, 험하고 편벽되며 사사로이 청탁하려는 마음이 없어, 조석으로 사념해서 근심하고 수고로움에 이른 것이다.

涉秦	鄭風 褻裳	<涉秦> 丌(其) 纒(絶), (29): <涉秦> (<鄭風·褻裳>)은 장차 절교하려는 결심을 읊은 것이고,	褻裳, 思見正也. 狂童恣行, 国人 思大國之正己也. <견상>은 바로잡 아주기를 생각한 시이니, 미친 아 이가 멋대로 행동하자, 국민들이 강대국에서 자기 나라를 바로잡아 주기를 생각한 것이다.
律而	著 而 ¹²⁾ (齊 風· 著)	<律而> 士 (29): <著而> (<齊風·著>)은 신랑에 대해 ·여 묘사한 노래이다.	著, 刺時也, 時不親迎也. <저> 는 시속을 풍자한 것이니, 당시 친 영(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집으로 돌아오는 풍 습)을 하지 않았다.
角旒	角枕 (唐 風·葛 生)	<角旒> 婦 (29): <角枕> (<唐風·葛生>)은 결혼한 여인 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葛生, 刺晉獻公也, 獻公好攻戰, 則國人多喪矣. <갈생>은 진나라 헌 공을 풍자한 시이다. 헌공이 공격 과 전쟁을 좋아하니, 국민들이 죽 는 이가 많았다.
河水	河水 (魏 風·伐 檀)	<河水> 智(29): <河水> (<魏風· 伐檀>)는 군자가 갖춰야 할 지혜 즉 분별(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 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에 대하여 노래한 것이다.	伐檀, 刺貪也. 在位貪鄙, 無功而 受祿, 君子不得進仕爾. <벌단>은 탐 욕스러움을 풍자한 시이다. 지위에 있는 자가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공 이 없으면서 봉록을 받아 군자가 나아가 벼슬하지 못하였다.

10) 제 18, 20간의 <折杜>는 원래 《詩經》의 篇명이었으나 현행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평론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작품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詩經》의 노래는 唐風의 <杕杜>·<有杕之杜>와 <小雅·杕杜> 등이 있다. 평어인 “情愜(喜)丌(其)至也”는 “<杕杜>의 애정이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옴을 기쁨으로 표현한 시이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小雅·杕杜>의 내용이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整理本의 견해와 같이 <鹿鳴之什>의 <杕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1) 整理本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 pp.153-154)은 제 24간의 시평 “(以)口(葉)蔽(萋)之古(故)也 〓 . 后稷之見貴也. 〓 則(以)文武之惠(德)也 〓”을 <生民>의 失篇名으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馬承源은 后稷을 頌揚한 시편으로 <生民>, <雲漢>, <思文>과 <魯頌·閟宮>을 소개하면서, 文武王의 덕으로 인해 명성을 얻은 后稷을 찬양하는 <生民>을 평론의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추정하였는데, 어쨌든 평론의 대상은 <周

《Abstract》

<Criticism on the Book of Songs(詩論)> dates back to earlier times than Qinjian(秦簡), as underground evidence that has come to light in the late 20th century has shown. This has caused such a big echo to be called a major discovery among learned circles since Jiaguwen(甲骨文) and Dunhuangwenshu(敦煌文書). This study is intended as a comparison between <Mao's introduction on the Book of Songs(毛詩序)> and <Criticism on the Book of Songs(詩論)> on the three spheres, like as descriptive structure, viewpoint of criticism, and restoration of 《詩經》.

關鍵詞 :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詩論>, <毛詩序>, 采詩觀風, 獻詩諷諫, 美刺說

이 논문은 2008년 5월 8일에 접수되어 2008년 6월 1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6월 2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南·葛覃>, <大雅·生民> 두 작품으로 압축된다. 黃懷信은 실제 작품내용을 근거로 분석하면서 <周南·葛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는 黃懷信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름.

12) 馬承源은 제 29간의 〈著而〉, 〈角枕〉, 〈河水〉을 逸詩로 간주하고 있으나, 〈著而〉에 대하여, 廖名春은 〈著〉로, 〈角枕〉에 대하여, 廖名春, 王志平 등은 〈葛生〉으로, 〈河水〉에 대하여, 周鳳吾, 何琳儀 등은 〈新臺〉로, 廖名春은 〈伐檀〉으로 각각 보았으며, 필자는 廖名春의 견해에 따랐다. 이상 篇名の 추정에 대한 각주 11) 12) 13) 등 상세한 견해는 필자의 上博楚簡 〈詩論〉에 대한 釋文考釋(I, II, III) (《中國語文論叢》 제29집 pp.317-341, 《中國語文學論集》 제43집 pp.351-374, 《中國語文論叢》 제33집 pp.133-156)을 참고 바람.